

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	<h1>보도자료</h1> <p>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</p>	 페이스북 @kcanews
 공정거래위원회		 인스타그램 @kca.go.kr

이 자료는 **4월 20일(수) 조간**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[방송·인터넷 매체는 4월 19일(화) 12시]

배포일	2022년 4월 19일 (총 9쪽)	담당	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
			김인숙 팀 장 (043-880-5421)
			손형수 대 리 (043-880-5423)
			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
이희재 과 장 (044-200-4418)			
최유리 조사관 (044-200-4420)			

“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”

- 안전취약계층은 사고비율이 높아 공구 사용 시 더욱 주의해야 -

- 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, 이하 소비자자원)과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*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.
 - * 나사, 못, 글루건 등 가정에서 물건을 고치거나 홈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도구
- 최근 4년간(2018년~2021년)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,070건 접수되었는데, 코로나19 이후('20~'21)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('18~'19)보다 57.8%(240건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※ 안전사고 접수 건수: ('18~'19년) 415건 → ('20~'21년) 655건
- 특히, 가정 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,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 -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, 못 등을 삼키거나,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으며, 고령자는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.
- 소비자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가정 내 작업공구 사용 시 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.

1

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

□ 최근 4년간(2018년~2021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*)에 접수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1,0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.

* CISS(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[연도별 현황]

(단위: 건, %)



구분	2018	2019	코로나19 이전	2020	2021	코로나19 이후
건수	150	265	415	315	340	655
증감률		↑ 76.7		↑ 18.9	↑ 7.9	↑ 57.8

○ 코로나19 발생 이전('18~'19)과 이후('20~'21) 접수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, 코로나19 이후 접수된 안전사고가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57.8%(240건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,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194건(18.1%) 접수되었으며, 65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는 257건(24.0%)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어린이, 고령자로 대표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.

2

세부 안전사고 발생 현황

가. 안전취약계층(어린이, 고령자) 안전사고 현황

-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하여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, '나사, 못(63건)', '글루건(59건)', '순간접착제(39건)' 등의 순이었다.
 - '나사, 못'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4세 이하 접수 건(63건)의 82.5%(52건)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으며, 주요 위해증상으로는 나사, 못을 삼키는 등의 '체내 위험 이물질'로 나타났다.
 - 3세 이하 '걸음마기'에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강해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 - '글루건'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59건으로 그 중 96.6%(57건)가 화상사고로 나타났고, 위해부위별로는 '팔 및 손'(40건), '둔부, 다리 및 발'(13건)의 순이었다.
 - 전체 글루건 관련 안전사고 86건 중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68.6%(59건)로 확인되었는데,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액에 화상을 입는 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글루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.
-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 257건을 분석한 결과, '사다리' 관련 안전사고가 77.4%(199건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
 - 특히, '정원/마당'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주요 위해부위로는 낙상에 따른 '머리 및 얼굴'이 68건으로 확인되었다.

나. 안전사고 다발 품목 현황

- '순간접착제'는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25.1%(269건, 연령미상 포함)를 차지했다.
 - 주요 위해부위로는 '안구'가 80.0%(215건)로 가장 많았고, 위해증상별로는 '결막염 또는 안구손상'이 119건이었다.
 - 순간접착제를 열 때 순간접착제가 눈에 튀거나, 안약으로 오인하여 점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.

-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홈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. 이에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 - 특히, 가정 내 작업공구 사용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어린이의 나사 삼킴 사고, 글루건 사용에 따른 화상 사고와 사다리 작업 시 부주의에 따른 고령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소비자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
 - ▲ 글루건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
 - ▲ 글루건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글루건을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할 것
 - ▲ 사다리 작업 시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, 작업할 때는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
 - ▲ 순간접착제 사용 시 얼굴에 가까이하여 사용하지 말 것
 - ▲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할 것
 - ▲ 공구 사용 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
 - ▲ 공구 사용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할 것 등을 당부했다.

붙임 1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

가. 개요

□ (현황) 최근 4년간(2018년~2021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*)에 접수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1,070건임.

* CISS(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□ (연도별) 2018년 이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,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, '20 ~ '21년 접수된 안전사고는 '18 ~ '19년 대비 57.8%(240건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

□ (연령대별) 연령별로는 '60세 이상'이 351건(32.8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'50대' 175건(16.4%), '10세 이하' 168건(15.7%) 순으로 나타남.

[연령대별 현황] (단위 : 건, %)

연령대별	~10세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세~	불명	합계
건수	168	48	84	101	133	175	351	10	1,070
비율	15.7	4.5	7.9	9.4	12.4	16.4	32.8	0.9	100
구분	어린이	청·장년층(15~65세)				고령자	불명	합계	
건수	194	609				257	10	1,070	
비율	18.1	57.0				24.0	0.9	100	

* 어린이(만 14세 이하), 고령자(만 65세 이상) 나이 기준: 통계청 연령기준에 의거함.

□ (연령대별 위해다발품목) ‘사다리’ 관련 안전사고가 426건(39.8%)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, ‘순간접착제’ 관련 안전사고(269건, 연령미상 포함)가 연령대별 상위 3개 위해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사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
- ‘순간접착제’ 관련 안전사고에 따른 주요 위해부위로는 ‘안구’가 215건(80.0%)으로 나타났으며, 위해증상으로는 ‘결막염 또는 안구손상’이 119건(44.2%), ‘체내 위험 이물질’ 73건(27.1%) 등의 순이었음.

[연령대별 상위 3개 위해품목별 안전사고 현황]

(단위: 건, %)

순위	10세 미만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1	나사, 못	순간접착제	순간접착제	순간접착제	순간접착제	사다리	사다리
	61(36.3)	20(41.7)	59(70.2)	48(47.5)	50(37.6)	84(48.0)	267(76.1)
2	글루건	글루건	나사, 못	사다리	사다리	순간접착제	순간접착제
	47(28.0)	16(33.3)	6(7.1)	17(16.8)	41(30.8)	35(20.0)	25(7.1)
3	순간접착제	나사, 못	글루건	나사, 못	전기드릴	톱	톱
	29(17.3)	6(12.5)	6(7.1)	11(10.9)	8(6.0)	17(9.7)	25(7.1)

* 연령미상 제외

- ‘10세 미만’에서는 ‘나사, 못’ 관련 안전사고가 61건(36.3%)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, ‘글루건’ 47건(28.0%), ‘순간접착제’ 29건(17.3%) 순으로 나타남.
 - 반면, ‘60세 이상’에서는 ‘사다리’ 관련 안전사고가 267건(76.1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순간접착제’, ‘톱’ 25건(7.1%) 순으로 나타남.
- (발생장소) ‘아파트’가 385건(36.0%)으로 가장 많은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고, ‘단독주택’ 257건(24.0%), ‘상세불명의 주택’ 248건(23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발생장소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구분	건수	비율
아파트	385	36.0
단독주택	257	24.0
상세불명의 주택	248	23.2
다세대주택	118	11.0
연립주택	62	5.8
합계	1,070	100.0

[세부장소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구분	건수	비율
거실	296	27.7
상세불명의 장소, 부대시설	236	22.1
침실/방	228	21.3
정원/마당	216	20.2
기타	94	8.7
합계	1,070	100.0

- (위해원인)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으로는 ‘물리적 충격’이 459건(42.9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식품 및 이물질’ 관련 안전사고가 296건(27.7%), ‘화재·과열’ 관련 사고도 92건(8.6%) 접수됨.
- ‘물리적 충격’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는 ‘추락’이 394건(84.0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주로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를 겪은 사례로 확인됨.
- ‘식품 및 이물질’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, 못 등 물건을 삼키는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, ‘화재·과열’ 관련 안전사고는 글루건 사용에 따른 화상이 많았음.

[주요 위해원인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순위	위해원인	건수	비율
1	물리적 충격	459	42.9
2	식품 및 이물질	296	27.7
3	제품 관련	191	17.9
4	화재·발연·과열·가스	92	8.6

- (위해증상)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에 따른 위해증상으로는 ‘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’이 480건(44.9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근육, 뼈 및 인대 손상’이 193건(18.0%)이었으며, ‘화상’도 100건(9.3%) 접수됨.
- ‘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’의 세부 내용으로는 ‘열상(찢어짐)’ 202건(42.1%), ‘결막염 또는 안구손상’ 132건(27.5%) 등의 순이었음.

[위해증상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구분	건수	비율	
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	열상(찢어짐)	202	18.9
	결막염 또는 안구손상	132	12.3
	찰과상	54	5.1
	그 외 기타	92	8.6
근육, 뼈 및 인대 손상	193	18.0	
기타손상*	143	13.4	
화상	100	9.3	
뇌진탕 및 타박상	81	7.6	
신체내부 장기손상	46	4.3	
해당없음	26	2.4	
전신손상	1	0.1	
합 계	1,070	100	

* 체내 위험 이물질, 위해증상 확인 불가 등

- (위해부위)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에 따른 위해부위로는 ‘머리 및 얼굴’ 부상이 438건(40.9%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‘팔 및 손’ 240건(22.4%), ‘둔부 다리 및 발’ 163건(15.2%) 등의 순이었음.

[위해부위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구분	머리 및 얼굴	팔 및 손	둔부, 다리 및 발	몸통	신체 내부	목 및 어깨	해당 없음	합계
건수	438	240	163	119	64	20	26	1,070
비율	40.9	22.4	15.2	11.1	6.1	1.9	2.4	100.0

나. 안전취약계층(어린이, 고령자) 현황

1) 어린이

- (품목별)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194건을 분석한 결과, ‘나사,못’ 관련 안전사고가 63건(32.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‘글루건’ 59건(30.4%), ‘순간접착제’ 39건(20.1%) 순으로 나타남.
 - (나사, 못) 63건 중 3세 이하의 ‘걸음마기’에 ‘나사, 못’ 관련 안전사고가 52건(82.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‘나사, 못’ 관련 안전사고의 주요 위해증상으로는 ‘체내 위험 이물질’이 45건으로 86.5%를 차지함.
 - (글루건) 전체 글루건 관련 안전사고 대비 14세 이하의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68.6%(86건 중 59건)였으며, 96.6%(59건 중 57건)가 화상사고로 나타났으며, 주요 위해부위로는 ‘팔 및 손’ 40건, ‘둔부, 다리 및 발’ 13건 등의 순이었음
 - (순간접착제) ‘순간접착제’ 관련 안전사고(39건)에 따른 위해증상으로는 ‘체내 위험 이물질’이 15건(38.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‘결막염 또는 안구손상’ 9건(25.0%) 등의 순이었음.

2) 고령자

- (품목별) 65세 이상의 고령자 안전사고는 25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24.1%로 나타났으며, '사다리' 관련 안전사고가 199건(77.4%)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(발생장소별) '정원/마당'에서 사다리로 작업 중 다친 사례가 82건 (41.2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작업 보조자 없이 혼자 작업을 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함.
- (위해부위 및 증상별) 사다리 낙상사고에 따른 위해부위 및 증상을 살펴보면 '머리 및 얼굴'이 68건(34.2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주요 위해증상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, 뇌진탕으로 나타남.

붙임 2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주요 소비자 위해사례

품목	위해사례
나사, 못	(여, 만2세) 새끼손톱 크기의 거실장 고정 육각 너트를 가지고 놀다 삼킴.
	(남, 만58세) 집에서 망치질하던 중 나사가 각막에 튀어 각막이 손상됨.
사다리	(남, 만87세) 사다리 위에 올라가 커튼을 달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타박상을 입음.
	(남, 만54세) 집 마당에서 가지치기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음.
순간접착제	(여, 만59세)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왼쪽 눈에 점안함.
	(남, 만6세) 순간접착제를 열다가 얼굴과 눈에 순간접착제가 튀어 안구가 손상됨.
글루건	(남, 만1세) 글루건 작동 중 글루건액이 오른쪽 발목 부위에 떨어져 화상을 입음.
	(남, 만2세) 글루건 손잡이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손톱 이탈과 출혈이 발생함.
	(남, 만5세) 녹은 글루건액에 입술을 갖다 대 화상을 입음.
톱	(남, 만36세) 집에서 톱으로 작업하다 톱날에 손등을 베임.

▶ 글루건 사용 시 주의사항

- 글루건은 플라스틱을 200℃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녹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작업 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.
-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장착된 글루심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합니다.
- 사용 후에는 전원코드를 반드시 제거하고 충분히 기기를 냉각시킨 다음 정리해야 하며, 잔량(글루건액)이 나올 수 있으니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.

▶ 사다리 사용 시 주의사항

- 사용하기 전에 각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정상태를 확인합니다.
-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합니다.
- 사다리는 바닥이 균일하지 않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지 않습니다.

▶ 순간접착제 사용 시 주의사항

- 사용 시 접착제 내용물이 눈 등 얼굴에 튈 수 있으므로 얼굴을 너무 가까이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순간접착제 용기는 안약 등의 용기와 비슷해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.
- 사용 후에는 뚜껑을 잘 닫아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.

▶ 가정 내 작업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

-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안전거리 유지와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여 작업합니다.
- 톱이나 망치 등을 사용할 때는 작업용 장갑 등을 착용한 후 작업을 합니다.
-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자리에 보관하고, 한꺼번에 많은 공구를 꺼내 작업하지 않습니다.